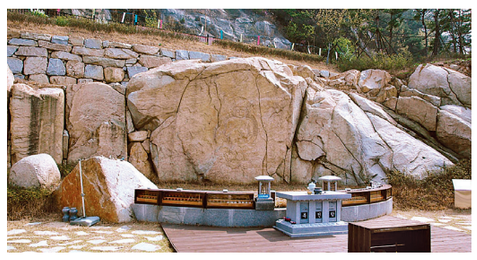
21일간의 국난극복 순례 함께해요

5일차 신라불교 초전지 구미 불교문화체험



5일차인 10월 11일은 구미에 위치한 신라불교 초전지에서 숙영한다. 신라불교 초전지는 아도화상에 의해 신라에 불교가 최초로 전해진 한국불교 성지로 구미시에서 불교문화체험을 위해 조성한 곳이다. 순례단은 이곳에서 구미 지역민들과 함께 아도화상을 기리는 참배와 신라불교 전래의 역사를 되새긴다.

6일차 낙단보 마애불 법회 상주 순례



6일차인 10월 12일은 4대강 사업 당시 폐불 위기에 처했던 낙단보 마애불 앞에서 법회를 진행한다. 낙단보 마애불은 2010년 4대강 상주 낙단보 공사 당시 발견된 마애불로 당시 자승 스님이 총무원장으로 있던 조계종은 종단 차원에서 마애불 수호운동을 벌여 이를 지켜냈다. 현재 마애불 인근에는 관리사찰인 마애사가 건립돼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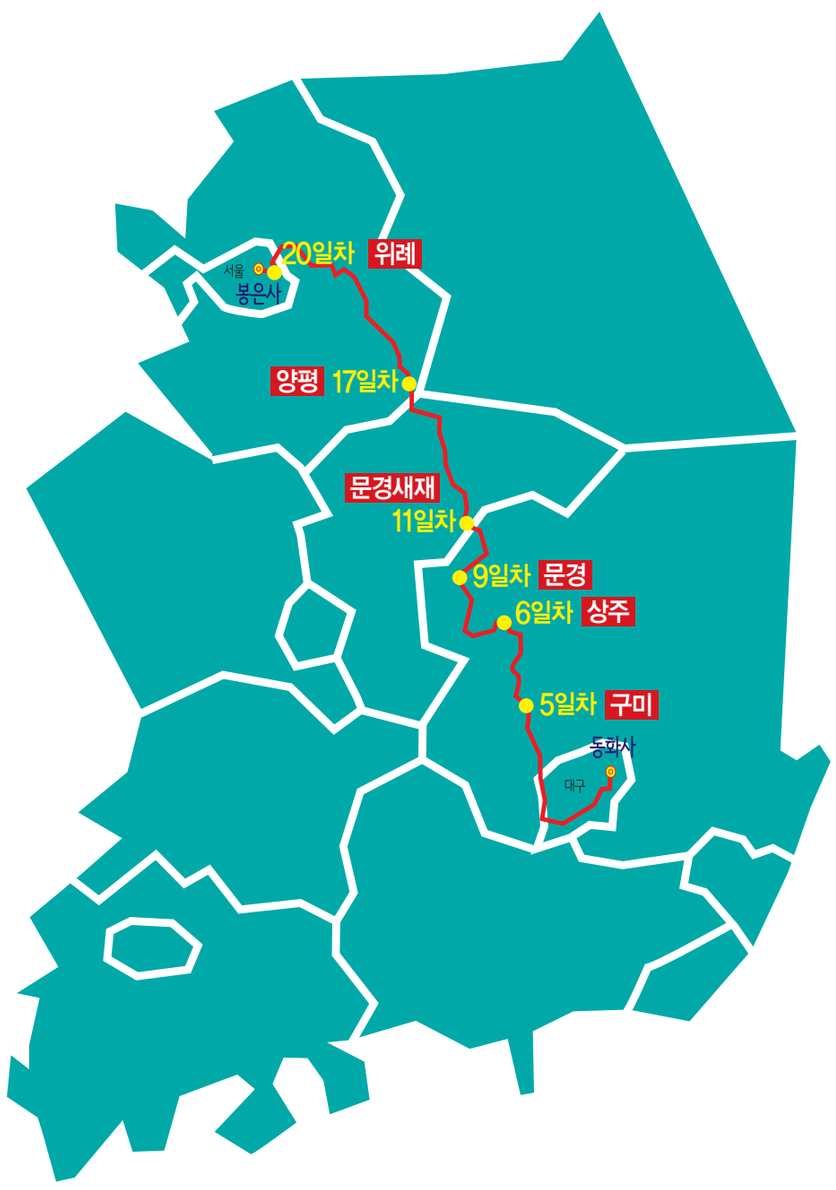
9일차 결사정신 고찰하는 대중공사

9일차인 10월 15일 순례단은 이번 순례 중 가장 고된 문경새재를 넘는 17일을 앞두고 STX리조트에서 잠시 정비시간을 갖는다. 여기서는 결사의 의미를 되짚는 대토론회가 열린다. 한국불교 결사의 역사와 자비순례를 비롯한 상월선원 결사를 이후 어떻게 대중에게 회향할 것인지에 대한 심도깊은 논의가 이어질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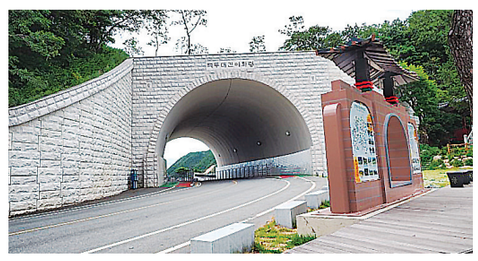


미리보는 자비순례 주요일정 (10월 8일 기준)

21일간 자비순례 순례단이 걷는 길은 대구 동화사부터 서울 봉은사까지 총 501km에 달한다. 이들이 국난극복을 위해 걷는 순례길 중 주요 지점을 소개한다. 독자들도 지면을 통해 자비순례에 동참해 보자. 〈편집자 주〉



11일차 선지식 전법길 되짚는 문경새재 순례



11일차인 10월 17일 순례단은 해발 548m인 문경새재 이화령 고개를 넘는다. 이날 걷는 오르막길은 순례단이 걷는 전체일정 중 가장 길다. 순례단은 이곳에서 선지식들이 전법을 위해 어떤 고난을 감내했는지 직접 체험할 것이다. 이날은 동국대 의료원 등에서 의료진과 물리치료사 등이 대기해 순례단의 치료를 담당한다.

17일차 한국불교 과제 짚는 양평서 대중공사



17일차인 10월 23일에는 정비를 위해 숙영하는 소노문리조트 양평에서 두 번째 대중공사가 진행된다. 두 번째 대중공사는 한국불교의 현실과 과제에 대한 전문가 초청강연 및 토론회로 이어진다. 이날 대중공사에는 중앙종회의원 스님들이 대거 참여해 함께 발전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며 18일차인 24일 양서면까지는 철야순례가 진행된다.

20일차 결사정신 결집 위례 상월선원 순례

20일차인 10월 26일 순례단은 동안거 천막결사가 펼쳐졌던 위례 상월선원을 찾는다. 상월선원에선 야단법석이 열려 대중들의 결사정신을 하나로 모을 예정이다. 20일간 순례에 지친 순례단을 격려하는 불자대중들의 발걸음이 예상된다. 이어 21일차인 27일에는 봉은사에서 자비순례 회향식이 거행된다.



상월선원 만행결사 자비순례 고불문



시방삼세에 두루하시는 부처님께 지극한 마음으로 귀의하옵니다.

오늘 도량에는 불법 아래 진중한 인연이 조화롭고, 공존과 상생을 실천하겠다는 서원으로 일심을 이루었으니, 거룩한 부처님께 고하여 올리는 마음 또한 청정합니다.
사회의 평온과 화합을 환하게 밝히겠다는 사부대중의 서원이 더없이 선명하기에 불은으로 열어주신 길을 따라 힘차게 걷고자 합니다.
우리가 내딛는 걸음걸음을 선불리 고행이라 여기지 않고 한 걸음이 행원의 과정이요, 한 걸음마다 의지의 실천으로 삼겠나이다.
부처님께서 열어주는 마음의 길을 따라 함께 걷고 그 길을 걸으며 나에게 묻고 나에게 답을 얻겠습니다.

근래에 수많은 생명은 고통에 쌓이고 세상은 어지럽기에 첫 걸음을 나서는 마음에 걱정이 앞서지만, 걷는 길에는 감사해야 할 대지가 풍요롭고 서로가 의지하는 서로가 바로 곁에 있으니, 불국토를 장엄하는 사람과 사람 사이를 묵묵히 걸어가겠나이다.
우리 사회에 드리운 어두운 그림자는 맑게 걷어내고 불안한 국민의 마음은 깨끗하게 씻어내어 희망과 행복의 웃음을 찾을 수 있도록 매일 축원하겠나이다.
국민들이 편안하여 화합이 이루어지고 모두가 건강하고 안전하여 이웃과 함께 화목하며, 한국 불교의 미래가 환하게 밝아지도록 일심으로 정진하겠습니다.

신심과 원력이 하나가 되는 정진이 곧, 너와 나를 이어주는 자비와 지혜의 길이며, 모든 사람의 복덕으로 고르게 나눠주는 회향의 공덕임을 알아가겠나이다.
이미 정토인 곳에서는 예경을 올리고, 이제 정토가 되어야 할 곳에서는 오늘의 정진을 기꺼이 나누어 보답하겠나이다.
지난 상월선원 천막결사의 열정과 성원은, 감동하고, 감사하고, 회향하는 실천이 얼마나 가슴깊이 진중한 것인지를 알려주었습니다. 천막결사의 정신은 여전히 뜨겁고 생생합니다. 수행의 진작이 불교 중흥의 주추를 세우는 일이며 국민의 화합으로 이어지고 세상의 평화로 화답해 오는 길임을 저희들은 이번 만행결사의 한걸음 한걸음에서도 알아가겠습니다.

지극한 마음으로 귀의하옵니다. 종단의 중흥이 사회의 평온으로 나아가기를 동참 대중 모두 부처님께 고하오니 섭수하시어 곧고 너른 길을 환하게 밝혀주시옵소서.

나무석가모니불
나무석가모니불
나무시아본사석가모니불

10·27 법난

제40주년 기념행사

지난 1980년 10월 27일 신군부 독재정권에 의해 자행된 '10·27법난'은 군인과 경찰 등 3만여 명의 공권력이 전국 5천여 개 사찰을 군홧발로 짓밟고 2천여 스님과 불교 관계자들을 연행하고 고문한 한국불교 근현대사에 있어서 최대의 수난사입니다.

올해로 '10·27법난'이 자행된 지 어느덧 4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그 고통의 역사는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고, 우리는 그 고통의 역사를 잊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역사에서 불법적이고 불행한 사건이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위해서는 '10·27법난'의 아픔을 역사의 기억으로 간직하고 전달해야 합니다. 이에 '10·27법난 제40주년 기념행사'를 진행합니다.

● 10·27법난 희생자 천도재
10월 27일(화) 오전 11:00~12:00 조계사 마당

● 10·27법난 40주년 특별전시회
10월 21일(수) ~ 29일(목)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1층 로비

문의 | 02-2011-1829(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 사회부)

※본 행사는 유튜브 생방송으로 진행되므로 참석이 어려우신 분은 유튜브로 참여 바랍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